

선거가 온다

김정환

〈귀신이 온다 鬼子來了〉라는 중국 영화가 있다. 대만 영화도, 홍콩 영화도 아니고, 중국 영화이다. 2001년 개봉되었는데 흑백이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칸느 영화제에 출품, 중국 정부의 미움을 사서 감독이 7년 동안, 제작자가 2년 동안 중국 국내 작품활동을 금지당했다는 이 작품은 그런 전후 사정보다 줄거리가 더 특이하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이 점령한 깡촌 마을, 평범한 농부 마다산이 과부 애인 유이와 한참 정사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마다산이 누구냐고 묻자 그냥 ‘나야’ 라고 대답한다. 마다산이 문을 열자 ‘나’ 는 산 채로 포로가 된 일본군 1명과 통역사 중국인 1명이 담긴 자루를 맡기며 ‘내가 올 때까지 심문하라. 신고하면 죽이겠다’ 고 협박하고 떠난다. 해군가에 맞추어 부대 행렬을 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 주는 존재였던 일본군이 공포의 대상으로 성큼 다가오고 마을 사람들은 포로를 숨겨 두고 있다는 비밀로 뚝뚝 뚫려가지만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다. 죽이려 했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맡긴 자를 찾아 돌려 주려 했으나 그냥 ‘나’ 라고 했으니, 오디세우스의 답변 ‘나는 아무도 아닌 자’ (I am none. 이 대답 때문에 그는 포세이돈의 복수를 피할 수 있었다. 그가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괴물 퀴클롭스의 눈을 볼로 지저 버렸으나 퀴클롭스는 ‘누가 그랬느냐?’ 는 포세이돈의 질문에 ‘none’ 이라 답했고, 결국 ‘아무도

그런 자가 없다는 답변이 되어 버렸다)와 다름이 없고 소용이 없다. 포로들은, 끊임없는 탈출 시도도 골칫거리지만, 그 자체로 난해하다. 일본군 병사는 그 옥쇄주의가 우스꽝스럽고, 통역사는 잘난 통역 실력으로 그의 옥쇄주의를 뻔뻔하고 주민들을 속이기 일췌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군 병사는 순박한 일본 농부로 순치되고, 그의 호소와 보상 약속에 주민들은 포로를 일본군영에 데려가지만 일본군은 포로로 잡혔던 병사를 전투 중 사망자로 보고, 전쟁영웅을 만들어 놓은 터였다. 블랙 코미디는 여기서 끝나고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 보상을 곡식을 대동하고 마을을 방문한 일본군은 잔치 중 주민들을 몰살하고 유일한 생존자 마다산은 중국 해방 이후 이제 거꾸로 포로가 된 그 일본군 일행을 습격했다가 중국혁명군 인민재판에 의해 양국의 우의를 깨트리려 했다는 혐의로 목이 잘린다. 마지막 장면은 죽은 마다산의 눈에 비친 시뻘건 세상. 그렇게 블랙 코미디는 레드 코미디로 끝난다...

여기에서 일본군을 '귀신'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다. 진짜 '귀신'은 복잡한 세상살이를 일도양단하는 단순-흑백 논리 그 자체이다. 4월 총선 물갈이를 한편으로 대망하면서 왜 나는 동시에 '귀신이 온다'에 빗대어 '선거가 온다'고 쓰고 있는가.

해방구의 경험이 수십년 독재로 길들여진 시민의식을 단시간 내에 원상복구해 주는 경험을 나는 1980년 5월 광주 해방구 얘기를 들으며 언뜻 느꼈다. 그렇다. 피 흘려 스스로 쟁취한 해방구는,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되었지만, 무엇을 위해 얼핏 막강한 공수부대와 맞서 얼핏 무모한 피를 흘리는가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 광경은 역사의 눈망울에 영영 아롱졌다. 대열의 경험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나는 1987년 6월 10일 민주화대행진을 전후하여, 주모자가 아닌 보통 시민으로, 감동적으로 체험했다. 사람들은 대열의 일원으로 대열의 합보다 더 우월한 미래전망에 동참하는 희열을 느꼈고 그 희열이 정치의 존재이유임을 단 며칠 만에 깨달

았다. 전두환 정권은 그 희열에 무릎을 꿇었다. 노태우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의 기만술이 먹혀든 결과였지만 그 희열을 겁냈고 양의 탈이나마 써야 했다. 김영삼 정권은 그 희열의 온기 덕으로 절반의 진보를 넘볼 수 있었고 김대중 정권은 6·10 항쟁의 온전한 성과물임을 자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젊은 세대의 축복 속에, 즉 미래의 축복 속에 탄생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온다… 해방구, 대열, 정치, 진보 이런 말은 그동안 얼마나 부황해졌는가. 말은 희열을 잃고 의미는 전망의 총체성을 상실했다. 선거란 말들이 공식화하면서 진지함의 무게를 잃는 시간이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 이래, 갈수록, 선거는 정반대 쪽으로 위력을 발해 왔다. 네티즌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인가, 민주주의란 말이 너털너털해졌는데? 텔레비전을 통한 후보 간 토론이 무슨 소용인가, '연설조'가 진지하고 차분한 안방 토론으로 심화하기는커녕 안방을 부황한 연설장으로 만들고, 정치적 대중문화와 TV적 대중문화가 서로를 천박화하는데? 언론이 무슨 소용인가, 막강한 대중문화가 여론을 선도하는데? 대중이 무슨 소용이고 문화가 무슨 소용인가, '대중'이란 말에, '문화'란 말에 알맹이가 없는데?

하여, 선거가 온다. 온 국민의 토론잔치가 아니라, 그기간 동안만은 후보자들 유권자들, 웬지 부황해도 되고, 더 웬지 부황해야 할 것 같은, 그렇지 않고서는 미칠 것 같은, 그러므로 정말 미치기 전에 '광견병 예방 접종' 주사를 맞아야 안심이 되는, 그리고 다음 선거 때까지 뽑은 놈이 뽑힌 놈을 욕하는 게 유일한 정치 오락인, 그러나 끝내 욕도 오락도 그저 그 뿐인, 선거가 온다.

유권자도, 후보자도 말한다. 예서 더 나빠질 게 있겠는가. 좋은 사람 뽑으면 차차 나아지는 거겠지… 그러나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고 묻는 바로 그 순간, 희망 자체가 부황해진다. 선거가 끝나면, 혹은 선거만 끝나면이 아니다. 지금부터 이를 앗다물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선거를 맞으며 가장 공들여야 할 일은,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사수라는 것. 그것은 심지어,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찬찬히 가려 뽑는 일보다, 낙선당선운동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네 선거는, 아니 선거 기간은, 등장인물의 됃됨이에 관계없이, 그 지경으로 왔다. '나' 라고 말했을 뿐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는 일도양단의 'must' 만을 강령으로 착각하는 부류들에 의하여, 그 부류에 혹시 나 또한 '2중의 나' 로 더욱 음흉하게 섞여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 우울하고 끔찍하다.

선거가 온다. ■

김정환 maydapoc@korea.com | 본지 편집위원, 시인, 한국문화학교 교장, 시집 『지울 수 없는 노래』, 『해방 서시』, 『김정환 시집(1980-1999)』, 소설 『세상속으로, 그후』 외 다수가 있다.